

특별기고

박옥규



지자체들이 로봇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로봇랜드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기위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산업자원부는 8월 중 로봇랜드 설립 지역을 선정한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로봇랜드는 종합적인 로봇문화공간으로 천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21세기형 테마파크의 성패는 차별화된 상상력과 경쟁력이다. 급변하는 최첨단 과학문명시대에 끊임없는 이미지 변화와 현대감각의 시대정신에 수시로 적응해가는 공간 활용과 수용능력을 가져야 한다.

로봇테마파크는 로봇문화의 수혜는 물론

리 지역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의 생활가전 그리고 광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생산도시로 문화중심도시로서 한 축을 이루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로봇랜드의 완성 시점에는 로봇기술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몇 십년 후의 번신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미래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 로봇문화산업은 급변하는 생활공간 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공지능의 로봇을 개발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적극 활용하는 지속적인 상품 개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래산업은 물론

로봇문화 확산을 주도해야 한다. 전시관, 로봇스포츠타워, 연구센터 등 로봇랜드를 조성하여 로봇산업의 리딩국가 선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70여명의 지역 원로와 각계각층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로봇랜드 광주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고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로봇랜드 유치 열망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되었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

무엇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여동산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피하고 재원의 효율화로 극대화할 수 있다.

전남도 역시 화원관광단지에 로봇랜드를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21세기 차세대 성장 동력인 로봇문화산업을 필히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광문화산업, 대단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 국내 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부디 광주·전남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되어 로봇랜드 유치가 성사되길 기대해 본다.

/서경정보대학 사회복지행정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체전 성공 시민참여에 달려 있다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제 88회 전국체육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는 이번 체전을 광주의 문화예술 수준을 대내외에 알리는 '아트체전'으로 치른다는 목표 아래 확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체전에 활용될 총 66개 경기장 가운데 신설 및 시설 개선수 공정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시는 다음달 초까지 모든 경기장 시설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경기장 시설은 성공 체전의 가장 기본 요소인 만큼 시는 남은 기간 동안 시설 공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편안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체전은 광주가 문화수도를 선언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규모 대회다. 특히 3만여명의 선수단과 외국인, 해외동포들이 참가하는 88회 전국체전은 '광주=문화수도'라는 전국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될 체전이 광주 문화수도 이미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체전 기간을 전후해 문화예술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 선수단과 관광객, 시민이 한데 어우러진 흥겨운 문화예술 축제의 장을 펼쳐 문화수도 이미지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연, 전통문화 체험,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체전이 문화체전으로서 성공을 거두려면 광주시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친절은 기본이다. 시민 모두가 대회 행사 준비요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선수단과 관광객을 맞아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을 줘야 한다.

10월 광주체전이 광주가 의향(義鄉) 미향(味鄉)을 넘어 문화수도 역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를 기대한다.

남북정상회담 연기 아쉽지만 기회로...

오는 28~30일로 예정됐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연기돼 배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연기는 북측의 연기 요청을 남북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은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북측이 정상회담의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긴급 수해복구다. 북한은 최근 중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평양을 비롯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도로, 전철, 통신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기 요청 이전부터 회담 일정과 의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연기 불가피했다는 북측의 주장을 믿고 싶다. 청와대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관측에 대해 수해복구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도 한 차례 연기됐 갖가지 추측이 나왔지만 여측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7년여만에 재개되는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북측의 연기 요청이 풀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연기는 북측의 연기 요청을 남북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은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남북은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남북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담의 의제 등을 원만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회담일정에 또 다른 변경이 있어서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한나라당은 '대선승리'라는 의혹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웬만한 '북풍(北風)'에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정상회담을 대선에 이용하려 해서 국민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차세대 생산도시 구축 계기

미래산업이란 매력과 세계 최초로 국제 규모의 로봇랜드가 국내에 만들어진다 점에서, 현재 로봇산업에 관심을 갖고 청사진을 발표한 지자체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부천과 안산, 인천, 대전, 포항, 창원 등 10여 곳에 달한다.

이제 우리나라 로봇 R&D전략도 기술 개발보다 수요창출형 R&D산업화에 더 비중을 둘 때다. 로봇R&D정책도 지능형 로봇의 개발단계를 넘어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여 수요자 위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로봇상품이 쏟아질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지역발전 견인차 로봇랜드 유치하자

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거운 놀이공원의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성공한 테마파크의 공통점은 재미란 집이다.

로봇랜드라고 로봇이란 테마에 너무 집착하다가 흥미성과 시대성을 놓치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잃게 된다. 따라서 로봇랜드가 완성되어 불거리와 재미를 제공하고 생활에 유용한 로봇이 제품화된다면 로봇문화체험은 로봇수요증과 로봇기술을 함께 키우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로봇문화산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로봇산업이 제2반도체 신화창조의 주역이 되도록 우

노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노인 및 장애인 위해 가정용 로봇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로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로봇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랜드와 함께 로봇기업과도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로봇사업과 함께 산업역량이 분산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광주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다.

대규모 수요공간을 확보하여 로봇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불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는 로봇 테마형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동희



필자는 현재 광주지방법검찰청에서 공판검사로서 하루 평균 100여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 관여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필자는 우리 사회에 음주주인한 범죄가 너무나 만연해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사건, 폭행이나 상해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회와 같은 재산범죄를 제외하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재판관을 기 위해 법정에서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불과 얼마 전 술에 만취하여 범

행에 등장하는데, 우리는 앞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술자리와 관련된 장면만을 보고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적어도 술에 관한 지식 모두는 이시전심으로 통하는 사이인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기본 좋게 마시는 술이라 해도 일단 만취하여 자신의 이성을 잃었을 때, 술은 더 이상 친구도 위안도 줄거울도 아니다. 그 때 마시는 술은 선한 지킬박사이던 스스로를 사악한 하이드로로 만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우리 사회를 병들고 파탄케

술 취하는 사회에 대한 단상

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은 너무나 소박하고 예의바른 우리 이웃의 모습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없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술 인심이 아주 후하고, 술 취한 사람에게도 상당히 관대하다. 처음 만난 사이라도 으레 "언제 술 한 잔 하자"고 인사말을 건네고, 우물쭈물 보이는 친구에게 "술 한 잔 할래?"라고 제의하는 것을 당연한 우정으로 여기며, 좋은 일이 생긴 사람에게 어김없이 '한잔 쏘라'고 할 정도이다.

TV 드라마에서도 흔히 고민에 빠진 주인공은 포장마차에 혼자 앉아 취하도록 소주를 마시고, 사랑에 빠진 연인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노래까지 곁들이며 마음껏 술에 취하는 장

하는 존재일 뿐이다.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일이나 제발 용서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술에 취해 벌어진 상황은 깨진 술병처럼, 옆 집러진 술처럼 이미 되돌릴 수 없기에, 눈물로 호소한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까지 술을 마셨다면 자신이 술에 취한 이후의 행동에 대하여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술을 마시는 이여, 술을 권하는 이여. 부디 한번만 더 생각해 주기 바란다. 내가 이 잔에 담겨있는 술을 마시고도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를, 내가 권하는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대방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를, 진정 그럴 수 있을지를.

(광주지법 공판부 검사)

기고

박경순



무더위 속에 국립 5.18민주묘지는 연일 밀려드는 참배객들로 묘지관리소 직원들 모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에 없는 일이다.

5·18행사 기간이 아닌, 그것도 한여름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매일같이 수십 명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와 연말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상업영화이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갖게 했다.

자신들의 가슴 속에 자리할 것이다.

봉분의 잡초를 제거하는 그 손길 또한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들을 통해 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확인하고 있다.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내일을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이 확인되고 실천될 수 있다면 민주열사들의 넋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소치에 실려 쓰레기처럼 파묻혀야 했던 유공자들의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정치인들은 호남을 찾을 때마다 이곳 묘지의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다.

'화려한 휴가'와 '국립 5·18민주묘지'

영화를 통해 얻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감동'을 묘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년에는 해질녘 광주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나오거나 휴가차 지방에 내려왔다가 잠시 다녀가곤 했다.

그러나 올 여름 이곳을 찾는 발걸음은 모두가 진지하고 안내자의 설명은 물론, 추모관의 전시시설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스스로 찾아와 묘지관리소에 배치해주는 일을 희망하면서 열심히 하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정말 고맙고 흐뭇하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주로 묘비를 닦고 봉분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들이다. 자기 손으로 희생자들의 묘비를 닦으며 희생자들의 송고한 뜻과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확인돼

다. 관계된 많은 사람도 동행한다.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휴가는 지역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간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곳이 우리가 예서 '민주화의 성지'임을 말하지 않아도 이곳을 찾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성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역설일까?

적어도 이곳을 다녀간 정치인들에 의해 5·18이 폄하되거나 왜곡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립 5·18민주묘지가 조성된 지 지난 5월13일로 10년을 넘겼다. 올해 문을 연 '5·18추모관'이 좀 더 많은 역사적 진실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다행스럽고 보람된다.

그리고 '국립 5·18민주묘지'가 민주주의 성지이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장>

실수로 깨트린 술병값 물어내란 것은 너무해

얼마전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 한 잔 하는데, 실수로 피쳐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다.

종업원이 다가가 병값을 물어내라고 했다. 깨트린 것은 미안하지만 손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따졌다. 그랬더니 "그 병하냐에 얼마짜리 줄 아느냐"며 역정을 내길래 병값 1만5천원을 주고 나왔다.

예전 독일 배낭여행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다. 슈퍼마켓에 들러 물건을 고르다 그만 맥주 상자를 밀치는 바람에 몇 병을 떨어뜨려

깨트려 버렸다. 당황스럽고 미안해 맥주 값을 물어줄려는데 주인이 "take it easy"를 외치며 오히려 "다친 곳은 없느냐"고 묻는 것이다.

너무나 미안하고 나를 걱정하는 태도에 고맙기도 해 "맥주 값을 물어주겠다"고 했더니 그 주인은 "보통에 가입돼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는 것 아닌가. 조그만 일에 신경쓰다보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지나치게 야박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정현경·목포시 연산동

휴가철 '빈집털이범' 기승... 예방 철저히 해야

막바지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빈집 털이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이맘때 발생하는 절도 사건이 평소 에 비해 20%이상 늘어난다는 경찰청 조사 결과도 있다.

여행 떠나기 전 신문이나 우유 대리점에 연락해 아파트나 주택 문 앞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뿐이다.

은행의 귀중품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은행 대신 경찰서 지구대에 맡겨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경찰은 휴가나 여행을 떠날 때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빈집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을 상대로 이뤄지는 무료 서비스나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본 좋게 떠났다가 기본 나빠 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희철·광주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無 等 鼓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 경선'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뒤졌던 여권은 국민 경선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복안을 내놓은 것이다. 2002년 3, 4월 두달동안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됐던 국민 경선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백마는 3월 16일 치러진 광주 경선.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1위에 오르며 대선 승리라는 극적 반전의 모멘트를 만들었다. 국민 경선의 힘이었다.

'이회창 안주론'에 빠져 두번이나 대선에 패배한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국민 경선을 선택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한나라당 경선전이 18일 밤 12시 30분까지 이어 박근혜 후보가 대표적이 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1년 2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민 경선에 정당상 처음으로 검증문화를 도입했고, 경선 투표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파격도 도입했다. 그러나 '빅2'인 이명박·박근혜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은 필사적이었다. 토론회와 연설회는 독설의 경연장이었다. 상대 후보를 '법박자' '유신공주'로 비난했고, '후보사퇴론' '원주불가론' '필패·필승론' 등 각종 음해성 시나리오가 난무했다.

아름다운 승복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당내 경선은 대개 불복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이인제 의원의 '경선불복의 원조 격'이다. 1997년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한 뒤 독자 출마했고,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선 노무현 후보에게 지 뒤 탈당했다.

한나라당 경선전이 마무리되면서 또 다시 경선 불복의 시나리오가 정가에 떨리고 있다. 경선 불복의 전례가 재연될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거리다.

/오중승 정치부장 js0h@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경제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회2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